

P8. 지역문화행사에서 방문객의 전통산물 이용에 대한 조사 분석

김미희*, 정현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통지식기술의 지속적 이용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전통산물은 지역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소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해당지역의 전통산물과 특산물 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축제와 이벤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행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산물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행사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행태, 상품구입, 상품선호,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전통산물의 판매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농업특산물, 동식물, 음식, 공업특산물 등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지역문화행사장 7개소의 방문객 351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관람하고 나오는 출구에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행사방문, 상품구입, 상품선호, 만족도,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행사방문에 관한 내용은 행사장까지의 교통수단, 동반행태, 방문동기, 행사에 관한 정보습득수단 등이 있고, 상품구입은 전통산물 구입여부, 구입상품, 구입이유, 구입하지 않은 이유, 용도 등이며, 상품선호는 선호하는 상품의 포장재질, 가공상태, 인증기관, 희망 할인을 등이고, 행사의 9가지 분야를 리커트 5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문객들의 행사장 방문행태를 보면, '자가용 이용'이 63.0%로 가장 많았다. 동반행태는 '가족'이 48.4%, '친구'가 23.1% 순이었다. 방문동기는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37.9%, '특산물 구입'이 33.9%로 나타났다. 행사장의 상품구입에 대한 행태의 결과는 방문객 중 59.0%가 상품을 구입하였다. 구입이유는 '품질이 좋아서'(49.5%), '방문기념'(36.9%), '믿을 수 있어서'(33.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곳(시내, 집근처)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45.1%)과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26.6%) 등이 있다. 상품 자체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방문객들은 상품의 포장 재질로는 '지류나 판지'(37.9%)를 가장 선호하고, '기초손질 정도'(53.6%)의 가공 상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방문객들은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16.8% 정도가 시중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환대성 부분이 가장 높고, 식음료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